희망의 디딤돌, 화합의 선율

혜원정사 제1회 혜원문화축제 열어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혜원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위), 경내를 가득 메운 신도들(아래).

한여름 밤 희망의 야단법석이 도심 속 산사에서 펼쳐졌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6월 12~13일 양일간 경내와 묘봉산 일원에서 혜원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혜원백일장과 혜원음악회, 성우원생 초청 피자파티 등을 하나의 축제로 통합해, 명실공히 도시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누는 기쁨, 하나 된 축제'를 슬로건으로 첫날인 12일 오전 10시 30분 만불전 및 예식장 강당에서 제12회 혜원백일장, 오전 11시 육화전에서는 성우원생 초청 피자파티가 마련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제1회 다인회 초청 차문화체험 이벤트를 열고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초청 강연 및 묘봉산 야생차밭 견학, 차 따기, 덖음 시연, 헌다례 및 접빈다례 시연 등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일주문에서 각종 먹거리 장터를 비롯한 연등 만들기, 떡판치기, 염주 만들기, 투호던지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장을 마련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특설무대에서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 공개방송이 성전 스님(남해 용문사 주지)의 사회로 박현빈, 정수라, 그룹 캔, 이범학, 한서경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열두 돌을 맞은 혜원백일장은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신설돼,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혜원백일장의 전체 참가자가 150여 명 안팎이었는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만 130여 명이 참여했다"며 "내년에는 입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 상을 목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밝혔다.

주지 원허 스님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혜원정사가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여는 빛의 전령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생명나눔 교육

17~18일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17~18일 제2회 생명나눔 강좌 '자원봉사자 및 생명나눔 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에서 개최했다.

첫날인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참가자 등록 및 본부장 원범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의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자세'와 김재성 교수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18일에는 하나병원 정철수 원장의 '조직기증 및 이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박동범 사무국장의 '장기기증 등록 및 홍보방법' 등의 강좌가 이어졌다.

이번 강좌는 2009년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숭고함과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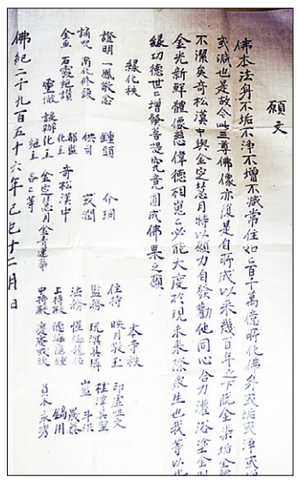
이에 앞서 13일 해동고(교장 김진구)에서 난치병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해동고 학생들이 모은 저금통 304개로 총 345만9520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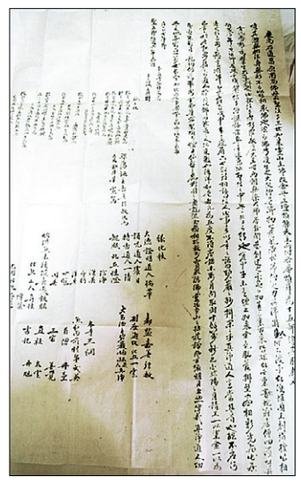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성주사 불사에 어사 박문수 '출두'

석가모니부처님 복장유물서 밝혀져


창원 성주사 전경.


성주사 석가모니부처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영조 5년 개금불사를 하며 쓴 복장문에는 박문수 어사가 개금불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 대웅전 주존불 석가모니부처님의 조성 연대와 함께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가 불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주사 석가모니부처님 복장(腹藏)에서 조선 효종 5년(1655) 불상 조성 당시 작성한 시주기(施主記)와 영조 5년(1729) 개금불사를 하며 쓴 복장문, 1929년 개금불사 때 지은 발원문 등이 발견됐다.

복장물은 5월 28일 개금불사 입재법회 후 26일 사중스님 및 관계자, 학술적 공인을 위해 경상남도문화재위원 이용현 교수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성주사 안심료 염화실에 옮겨 모신 부처님 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많은 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1655년 부처님을 만들어 모신 '신조불상시주기(新造佛像施主記)', 1729년 '개금불사 등에 관한 복장문(腹藏文)'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개금 복장문에 등장하는 경상우도관찰사 박문수와 연관된 여러 불교설화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1727년 영조대왕으로부터 '영남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활약하고, 1년 후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경상우도 관찰사'로 봉직하게 되는데, 이듬해 성주사 개금불사에 동참한다"는 내용은 박문수가 경상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불상 개금을 하는데 재물을 보탰다는 것으로 당시 숭유억불의 시대상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개금불사는 7월 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를 갖는다. 개금된 불상은 원래 자리에 다시 모셔질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괌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 '10년'

7월 17~21일 개산 10주년 개산대제 개최

남태평양 괌도 유일의 한국사찰 낙가사(주지 도휘)가 산문을 연지 10주년을 맞았다.

보타산 낙가사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7월 17~21일 4일간 개산대제를 개최하고, 수륙재와 생전예수재를 함께 봉행한다.

개산일인 7월 19일 오전 9시 낙가사 대웅전에서 개산 법요식을 갖고, 오전 10시부터 아산비치에서 조고조상 및 유주무주 고혼영가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강성인 단장이 이끄는 10인의 국악인이 펼치는 산사음악회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사의 밤을 수놓는다. 또 생전예수재는 지난 5월 31일 입재해, 개산대제 기간 중인 7월 18일 오후 6시 기도회향법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특히 이번 개산대제 기간 중에는 월봉 스님과 종호 스님 등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우리 교민과 현지 외국인을 위한 법문을 설하는 법석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괌에는 한국 교민 약 3000명이 거주하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회는 20여 곳이 있지만, 사찰은 단 2곳뿐이다.

주지 도휘 스님은 "낙가사 외 1곳은 대만 불광산사가 지원하는 중국 사찰로, 한국의 불교 사찰은 우리절뿐"이라며 "조계종단 차원에서 한국의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경투어에서는 낙가사 개산대제 기간인 7월 17~21일까지 4박5일간 항공권을 할인판매한다. 또 한국에서 참가하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에서는 괌 현지 콘도에서 무료숙박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051) 667-0841

박지원 기자

44명에 장학금

경봉 스님 추모법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 무량수전에서 6월 19일 오전 10시 경봉 대종사의 제27기 추모법회와 2009학년도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장학생은 박사 과정 2명, 석사 과정 4명, 학사 과정 30명, 통도사 강원 8명 등 총 44명의 스님과 선원 3개소, 율원 1개소 등이 선정됐다.

이어 제5회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박지원 기자

"범죄 없는 부산 함께 만들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불교연합회 · 신도회 대표단과 간담



왼쪽에서부터 부산지방경찰청 김영식 차장, 김중학 청장,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설동근 회장.

부산 불교계 지도자와 부산지방경찰청 지휘부, 재가불자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중학)은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7층 중회의실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대표단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찰청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김중학 청장, 정여 스님, 설동근 회장의 인사말, 자유토론 간담회, 청사 투어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하는 일을 스님들이 열심히 돕는 것"이라며 "불교수도 부산이 범죄없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중학 청장도 "정국이 혼란한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사회 지도자인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치안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미륭사 회주) 등 임원 스님 15명과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설동근(부산시교육감) 회장, 김동렬 상임부회장 등 임원단 재가불자 15명, 부산지방경찰청 김중학 청장, 김영식 차장 등 지휘부 14명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